

7. 관계를 위한 시간 Relationship Time

부부/싱글 이슈 시리즈 첫 번째 브로셔에서 보았듯이, 도로시가 정신 질환을 앓았고 남편이 간통을 했다고 비난하고 다니던 마지막 12년 동안에 도로시아 윌리엄은 부부 관계를 위한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다. 윌리엄이 목회자면서 선교사였던 10년 전에도 그들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윌리엄은 목회와 선교사역을 하는 일에 사로잡혀 가족 중 어느 누구와도 보낼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오늘날 선교사역에 헌신한 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족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우선순위 목록만큼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에게 있어 제일 우선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번째 우선 순위는 크게 다르다. 일부 선교사들은 가족에게 그 다음 순위를 두는 반면에 일부 선교사들은 사역이 두 번째 순위라고 말한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이 두 번째 우선 순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말한 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우선 순위와 관계를 위한 시간에 대해 고려해 보도록 하자. 그런 시간에 대한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을 나열해 보았다.

무엇을?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 최고 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배우자가 제2의 우선순위라고 말하지만 배우자를 위해 시간을 내지는 않는다. 비록 사람의 재능, 지성, 소득 등이 크게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은 동일한 양의 시간을 갖고 있다. 매일 24 시간, 매주 7 일, 매년 52 주의 시간이 있다.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모든 관계는 유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경이롭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의아해한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관계를 위한 시간이다. 즉, 정기적으로 정한 시간에 둘 다 즐길 수 있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부부의 관계를 위한 시간이며, 스트레스가 없는 긍정적인 시간을 말한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비록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던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합당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경향이 있다. 서로의 관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들은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등한시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거부하지 않아도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 정기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배우자들은 자신들이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관계유지, 즉 관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누구?

모든 연령의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물론 그들은 자녀, 친구, 동료, 주위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할 것이며, 또한 목사나 상담자와 상담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관계를 위한 시간은 방해나 간섭 받는 것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몇 가지 지침사항이 있다.

- 자녀들은 자고 있거나, 학교에 갔거나, 육아 도우미와 함께 있어야 한다
- 휴대폰, 무선 호출기, 심지어 진동도 꺼야 한다
- 전화선을 뽑아 놓든지, 무음으로 하고 자동응답기가 받도록 한다 (음량을 최대한 낮추어 전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다)
- 현관 초인종이 울려도 무시한다 (창문 블라인드를 내려서 방문객이 집안을 보지 못하게 한다)
- 만일 ‘공공 장소’라면, 둘만의 ‘오붓한’ 장소를 찾아라. 음식점 같은 경우 구석진 곳에 있는 테이블이나 칸막이가 있는 곳을 찾아라.

관계를 위한 시간이란 방해나 간섭이 없는 오직 둘만의 시간을 의미한다.

언제?

하루 중 언제든지 일주일 중 어느 날이든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파트너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이어야 하며, 두 사람의 각 일정에 ‘돌에 새겼듯이(carved in stone)’ 변경 불가능해야 한다. 이 말은 만약 어느 위원회 회의 시간이 당신의 관계를 위한 시간과 겹쳤을 경우 당신의 답변은 “나는 그 시간에 선약이 있으므로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강요 없이 배우자가 전적으로 동의할 때만 일정을 변경한다.

가족 상황이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최선의 시간이 매일이 될 수도 있고, 매주 될 수도 있다. 어떤 배우자는 특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놓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배우자가 “내가 매주 두 시간씩 _____을 보는 것이 당신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거나 “내가 매일 30분 동안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당신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몇몇 커플은 한 주에 한 번 상당한 시간 (적어도 두 시간 이상, 가급적 그 이상)을 함께 보내기를 선호한다. 그 외 다른 커플들은 매일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 매주 목요일 저녁은 데이트하는 날로 정하고 도우미를 쓴다.
- 매주 토요일 마다 테니스를 치고 점심을 같이 한다.
-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서로 안아주는 시간을 갖는다.
- 밤에 잠들기 전에 소리 내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를 위해 언제 시간을 할애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둘만의 최적의 시간에 관계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어디서?

중간에 방해 없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디서 함께 시간을 보내든지 그것은 상관 없다. 어디서 만나는지 비용 혹은 함께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달려있다. 어떤 장소는 무료라서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을 그 곳에서 만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가끔 비용이 드는 장소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만남을 갖는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 집안에 있는 특정 장소 (가장 보편적인 장소)
- 공원
- 음식점
- 수영장
- 호텔 로비
- 호수나 강가
- 테니스장
- 등산로
- 커피전문점

역시 요점은 어느 장소에서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남을 갖는 것이다.

어떻게?

그 시간에 서로 즐길 수 있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서로에게 달려 있다. 기억할 것은 이 시간이 매일 또는 매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일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시간을 정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관계를 위한 시간을 갖는 동안은 그 문제를 신경 쓰지 않도록 한다. ‘심각한 문제’이지만 아무도 거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잠시 동안 보류해 둔다.

관계를 위한 시간은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세워주는 유익한 시간이다. 상대 배우자로부터 같은 사과를 받아야 하는 기대나 압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_____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것도 괜찮다. 이 시간은 배우자 둘 다 원하지 않는 한 성관계를 갖는 시간이 아니다 (압박감 또한 없어야 함).

관계를 위한 시간은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다. 그런 이유에서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곳은 다른 관객들로 인해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뿐 아니라 모든 관심의 초점을 그 공연에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함께 저녁식사를 하거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 책이나 기사를 읽고 논하기
- 테이블 게임을 함께하기
- 언덕에 올라 계곡을 바라보기
- 강이나 호수에서 카누를 타기
- 스케이트장이나 도로변에서 스케이트를 타기
- 조용한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
- 새들에게 모이를 주기

- 비공식적인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 농구를 같이 하기
- 공원에서 사람 구경하기

물론 이런 것들은 다소 전통적인 것들이다. 많은 책이나 웹사이트에 좀 더 ‘창의적인 데이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그런 시간을 위한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함께 세차하기 (서로에게 물을 뿌리거나 장난을 칠 수 있는 한에서)
- 시내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해보기
- 뒤뜰에서 숨바꼭질하기 (술래가 찾을 때 함께 같은 수풀에 숨어 본다 - 누구로부터든 상관없이)
- 한 뭉치의 종이를 공원에 들고 가서 서로 누가 더 ‘재미있게’ 비행기를 접어서 날릴 수 있는 지 해 보기
- 호수에 가서 누가 물이 더 많이 튀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 해보기
- 자기가 손수 만든 연 날리기
- 가까운 놀이 공원에 가서 고카트(Go-Karts)나 범퍼카 (bumper cars)를 타기
- 노래방에 가서 같이 노래하고 많이 웃기
- 마치 부활절인 것처럼 계란에 색칠하기
- 가까운 과수원에 가서 과일 따기
- 좋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구경하기

다시 말하자면, 가능성은 오로지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첫 심리학 수업 시간에 교수가 말했던 것이 진리임을 점점 더 깨닫는다.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커플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는 것과는 상관 없이 점점 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